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한해의 결산

많은 변화들 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

1997년 충현의 '10대 주요행사' 돌아보기

1997년 마지막 주일이다. 빠르다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어느새 한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다. 우리의 손을 거처간 수많은 일들, 우리와 만났던 수많은 얼굴들과의 시간이 영원한 과거에 묻혔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 땅과 하늘을 구분하고, 시간과 영원을 구분하고, 죽음과 생명을 구분할 그 한 점의 그림자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었다. 올 한 해에도 큰 변화와 행사들이 많았다. 이에 '10대 주요행사'를 선정하여 정리한다.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힘과 각오를 얻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① 김성관 담임목사 위임식 예배

8월 21일에는 김성관 목사의 위임식 예배가 있었다. 이때 김 목사는 "생명을 걸고 예수만 전하는 목회에 전념하겠다"는 각오와 더불어 "예수님만 높이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으로 교회를 세워가자"고 호소한 바 있다.



② 김창인 원로목사 성역 60주년 기념예배

5월 15일에는 김창인 원로목사 성역 6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에 맞추어 교회에서는 《김창인목사와 충현교회》 책자를 발간하고 충현 소식장학재단 발인을 구성키로 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22일까지는 이를 기념하여 97 충현선교대회를 가지게도 하였다.



③ 젊은이가 드리는 5부예배 신설

"젊은이가 드리는 5부예배"가 8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시작되었다. 약 1천 5백명에 화집되어 시작하여 5부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충현교회

가 젊은이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장차 이들이 세계선교의 주역들로 세워져가기를 기도하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④ 헌금 바로 하고 바로 쓰기

9월 초부터는 헌금 바로 하고 바로 쓰기가 크게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역자들은 일체의 개인적인 헌금이나 선물을 받지 않기 시작했고, 파송선교사들도 이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직하고 겸손하게 헌금하는 자세들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⑤ 찬송으로 살아가는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

매일 새벽 4시 40분,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본당 전체에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진다.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되는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가 찬송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섰다. 새벽기도회는 울려오는 성도들로 인해 6월 25일부터는 기도회 장소를 본당으로 옮기게 되었다. 금요집회 역시 온 성도들의 찬양과 특별찬양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어울려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와 함께 매주 1천명에서 1천 5백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⑥ 아프리카 선교정탐

'영혼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새해부터 매주 월 2, 3, 4, 5부 예배전 15분

새해부터는 매주 월 2, 3, 4, 5부 예배 전에 15분 간 특별찬양순서가 있다. 찬양위원회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는 취지에 따라 이러한 특별순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예배 20분 전에 미리 와서, 특별히 연주되는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찬양은 2부 백금옥(오르간), 3부 김익주(독창), 4부 윤혜경(바에울렌), 5부 젊은이 찬양팀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5부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이미 지난 11월 마지막 주부터 예배전 20분부터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의 시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부예배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은 예배가 2시 40분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미리 자리하여 뜨거운 찬양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고, 2, 3, 4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각종 화악나 모임이 예배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힘써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회교권의 공략이 집중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서, 이 지역을 향한 선교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교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아프리카 케냐 선교정탐여행을 다녀왔고, 이어서 지난 12월 22일에는 수단선교를 위한 정탐여행을 떠났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단기선교여행팀이 아프리카를 향하게 될 예정이다.



⑦ 청년교구 신설

청년교구가 신설되었다. 청년교구는 고등부 이상 미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단독세대(가족중 본인만 교회에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여 시작된 것이다. 교회는 젊은이의 영적 부흥과 이들을 통한 교회와 선교의 갱신과 부흥을 꿈꾸면서 앞으로 청년교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⑧ 교회설립 44주년 기념예배

9월 7일은 교회설립 44주년 기념주일이었다. 이날 찬양예배시에 연주된 아멘찬양대의 '신앙고백'은 충현교회 설립기념주일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찬양이 되었다.

⑨ 교구별 영성훈련

교구별 영성훈련에 전반기와 후반

기 두 번에 걸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반기는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후반기는 11월 11일부터 98년 1월 15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후반기에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감사를 담고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등 영육의 회복을 함께 이루는 의미깊은 시간들을 가져오고 있다.

⑩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지난 10월 30일에는 제30대 장로 6명, 제11대 안수집사 7명, 제39대 권사 50명에 대한 임직예배가 있었다. 이들은 3월 16일 공동의회를 통해 피택된 이후 6개월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임직되었다.

오늘 찬양예배후 특별제직회
공동의회 1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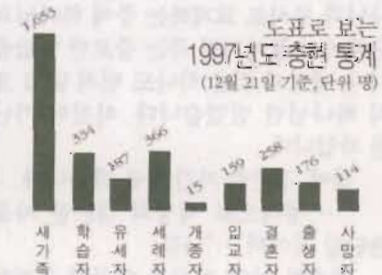
교회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특별제직회를 갖는다. 안건은 1997년도 결산과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이다. 또한 1998년 1월 4일 주일 찬양예배 후에는 같은 안건으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된다. 모든 제직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교회의 중요한 일에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1998년 1월 1일 0시

송구영신예배

오전 9시와 11시에는 신년예배로

1998년 1월 1일 새벽 0시에는 새해를 여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다난했던 수많은 일들과 경제적인 난맥상을 그대로 안고서 맞는 1998년이지만,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하나님께 존전에 내려놓고, 겸손히 예배함으로 새해를 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시게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하시기 때문이다. 한편 1월 1일 오전 9시와 11시에는 신년예배를 드리게 된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천국 왕 메시아의 통치 (2)

(이사야 11:4-5)

〈지난 주일에 이어〉

1. 천국 왕의 내력이 어떠합니까
2. 천국 왕의 자격은 어떠합니까
- (1) 지혜와 총명의 신이 충만하십니까.
- (2)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십니까.
- (3) 진리의 신이 충만하십니까.
3. 천국 왕의 정치는 어떠합니까

4. 천국 왕의 보상과 책벌이 어떠합니까

천국 왕 메시아께서 정치를 하실 때에 상을 베풀 자에게 상을 내리시고 형벌을 가할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 천국 왕의 상주심이 어떠합니까

① 천국에서 상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가난한 자가 상을 받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여...”
(4절)

가난뱅이에게 상을 주신다니 가난한 것이 복이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못입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의인인 노아가 방주를 만든 돈으로 예배당을 지으면 스무 개를 짓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굉장한 큰 부자였습니다.

요도 동방의 일등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지만 천국에 가는 줄로 알면 큰 잘못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받은 자로서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그가 개인으로 키운 병사가 무려 318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왜 천국에서 상받을 자를 ‘빈핍한 자’, 즉 가난한 자라고 하였을까요?

이 가난한 자란 육신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기가 범한 죄를 털끝만큼도 숨기지 않고 다 내어 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가난한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버리시면 저는 영육간에 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읊이 그랬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무시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 겸손한 자가 상을 받습니다.
“...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4절)
겸손한 자란 자신의 책임에 충성하

여 성공하고도 조심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책임에 죽도록 충성해서 주인이 원하는 소원보다도 뛰어나도록 성공하여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후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한 후에 칭찬을 받고도 뽐내지 않고 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을 주십니다.

② 천국에서 어떤 상을 주십니까?

첫째, 평강을 상으로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배가 고파도 평안하고 매를 맞고도 평안하고 감옥에 갇혀도 평안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이것은 천국 왕에게 상을 받은 첫째 증거입니다.

둘째, 승리생활을 상으로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셋째, 칭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성공하여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면류관입니다.

넷째, 필요한 것을 누리는 상을 받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받습니다 (마 6:33). 육신에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시고 영혼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 천국 왕의 벌주심이 어떠합니까

① 천국에서 벌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 악인을 죽일 것이며” (4절)
첫째, 악하고 게으른 자가 벌을 받습니다 (마 25:26).

적분자로 임명은 받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이 제일 무겁게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게으러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를 “악하고 게으른 자여”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둘째, 악하고 음란한 자가 벌을 받습니다 (마 12:39).

남편이 있는데도 잘 생긴 남자를 유혹하고, 아내가 있는데도 예쁜 여자를 유혹하는 더러운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지옥불이 뜨거운 줄을 몰라서 하는 범 죄입니다.

셋째, 악하고 거스리는 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자는 천국 왕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넷째, 악하고 잔인한 자가 벌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왕에게 벌받는 자가 되지 말고 상받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왕에게 심판을 받게 되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자, 음란한 자, 교만하여 반역하는 자, 인정 없는 개인주의자, 거짓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남의 사정을 외면하는 사람이 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주의에 눈이 어두워 남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악한 세대를 탄식하셨습니다. 아이가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친구가 없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주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인정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다섯째, 악하고 거짓된 자가 벌을 받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습니다.

② 천국에서 벌주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4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입에서 막대기가 나오고 그 입술에서 기운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신답니다. 이상합니다. 칼이나 몽둥이로 심판하시지 어떻게 입에서 몽둥이가 나오고 입술에서 무슨 기운이 나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개 세상나라의 왕이라도 “거 아무개는 사형집행을 해라” 한 마디가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왕의 말 한 마디가 이렇게 절대권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주만물의 대왕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말씀 한 마디로 심판하십니다.

5. 천국 왕의 복장이 어떠합니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5절)

천국 왕 메시아께서 영광의 옷을 입으셨는데 허리에는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띠셨다는 이 말씀은 완전무장을 갖추시

고 나타나셔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짐승이 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태초에 말씀 한 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장차 심판의 때에는 말씀 한 마디로 천악간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목적으로 삼고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위하여 일을 계획한 적이 없으십니다.

천국의 왕 메시아의 정치 표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리하십니다. 오로지 공의와 정직을 표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하여 공의롭고 정직하게 다스리십니다. 결코 치우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왕에게 벌받는 자가 되지 말고 상받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자, 악하고 음란한 자, 악하고 교만하여 반역하는 자, 악하고 인정 없는 개인주의자, 악하고 거짓된 자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천국 왕에게 심판을 받게 되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왕 메시아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로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책임을 다하고 조심하여 상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 New Year'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The Lord's Blessing

(1 Corinthians 10:16)

Who doesn't like to receive blessing? Everyone desires blessing for their time and effort whether it be in education, religion, business, recreation, or competition. Is there anybody who doesn't like blessing? No! Everyone wants blessing. With 1998 approaching, people begin to form New Year's resolutions. The majority of resolutions, without a doubt, center on human blessings. However, as revealed in today's scripture passage, the wise in faith focus on the Lord's blessing.



What is the Lord's blessing? It is the blessing Christians receive from partaking in the Lord's Supper (also called Holy Communion or Eucharist). When we become involved with the blood and body of Jesus Christ, we receive the greatest blessing. You would be surprised at the number and types of people who don't know this. There are esteemed priests and famous theologians whose resolutions focus on worldly things such as their reputation, success, home and health. All these things are under the sun and have no benefit. In Ecclesiastes 1:3 Solomon asked, "What advantage does man have in all his work which he does under the sun?" Remember his answer, "I have seen all the works which have been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striving after wind" (Eccl. 1:14). When the clock strikes midnight on January 1st, many will dedicate themselves to the things under the sun. Those with spiritual eyes will not look to the things under the sun but will look above to where there is light without sun. I want us to join together and share the Lord's blessing.

1 Corinthians 10:16 states, "Is not the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 a sharing in the blood of Christ? Is not the bread which we break a sharing in the body of Christ?" The shed blood and broken body of Christ are here regarded and, must ever be regarded, as the deeply beautiful expression and effect of His self-sacrificing love. Christ's broken body and shed blood are sacrificial because He went to His death in willing love and because He, the holy Lamb of God, substituted Himself for sinners. Partaking of the Lord's Supper signifies our confession that we deserve death for our sins and that God gave the Lamb, His Son, in our place. Jesus Christ offered up Himself on the cross one time for us, for all sin, forever.

His 'flesh and blood' refer to His spiritual life. What was that spiritual life that animated and controlled Him? Self-sacrifice and love. This made Him Spirit, marking Him separate from all other men that ever lived. It was the very body and blood of His soul. This means that there are two great purposes of the food (drink and bread); it gives strength and satisfaction. No man can become morally strong or morally satisfied without receiving the self-sacrificial love of Christ.

Jesus gave the bread and the cup at the Last Supper with the commandment to remember His death until He comes. We do remember the Lord, in relation to the future as well as the past, but we remember Him in terms of His broken body and His blood. Just as baptism marks union with

● 김성관 목사의 신년예배 설교 ●

주님의 축복

(고린도전서 10:16)

축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배우는 일이나, 종교생활 하는 일, 혹은 사업이나 여가나 경쟁하는 일에 있어서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1998년이 다가옴에 따라 사람들은 새해를 바라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결심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적으로 복을 받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만찬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를 알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무척 놀라실 것입니다. 존경받는 성직자들과 유명한 신학자들이 새해를 맞아 각오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명성, 성공, 가정, 그리고 건강 같은 세속적인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 아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1:4)라고 말하였던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정월 1일 자정을 가리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해 아래서의 많은 일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결심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해 아래서의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해가 없이도 빛이 비추는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선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고도 전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와 찢겨진 몸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를 진실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린 피가 희생적인 것은 주님이 자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죽음으로 나아가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대신 죽으시도록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의 삶을 그토록 생생하게 대표하였던 그의 영적 생명은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제껏 살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명백한 차별성을 가지는 주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떡과 포도주의 목적입니다. 곧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도덕적으로 능력을 얻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와 더불어 미래를 내다보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주님을

God and membership into His family, the Lord's Supper marks our continuing communion in the family of God. It portrays us receiving of life from Christ as we feed on Him.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For My flesh is true food, and My blood is true drink.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abides in Me, and I in him" (John 6:54-56).

Partaking of Christ by faith is eating the true manna which is the bread of heaven given for the life of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e work of the Spirit in opening the heart to believe gives life by enabling the believer to feed on Christ, the only source of life. As His disciples, we have communion with Christ when we drink in His Spirit. By living sympathy, we are brought into a close and tender fellowship with Him. Christ comes into us and sups with us and we with Him. The Lord's Supper brings both assurance of the saving power of His death and joy in the renewal of His life. We are always bringing those for whom we have the strongest sympathy into our innermost being. Jesus is the greatest sympathizer and we need to bring Him into the center of our innermost being.

Because we are united to Christ, we must be joined to one another: "Since there is one bread,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for we all partake of the one bread" (1 Cor. 10:17). Just as we receive communion with Jesus; so do we receive communion with one another. The breaking of bread is a significant act of exposure supplanted in the Body of Christ.

Not only that, but Jesus gave His life and gave us eternal life so that we can love and share that love with others,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The Choong Hyun Church needs to stand on the Bible and gather together under the cross and find out about the true crucifixion. We need to look at the cross and see that Jesus is real! He's telling us that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pleading, "Please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 burdened and I will make you fre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 want us to get the best blessing - the cup of blessing and the bread which we share in the body of Christ.

The best way to bring i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is for every church member to join together and spiritually partake in the bread and blood of Jesus Christ. The Korean church community has lost the spirit of the gospel. Our country has lost the spirit of the gospel. The world is going down to hell! Let's straight-out come back to Jesus' blood and body; to our heart, life, and soul. Let us sincerely repent. For there is a warning to those that share the Lord's Supper (1 Cor. 11:27-30); no one can eat the bread or drink the cup in an unworthy manner (with unconfessed sin). This may result in judgment, even sickness of physical death (vss. 29-30). Therefore, we need to carefully examine ourselves and repent prior to partaking. We need Jesus' saving love - we need the light from above the sun - the Glory of God!

Christ still gives the bread and the cup, His most awesome blessing to those in faith, sealing His presence until the day when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finished. When that day comes we will see Him whom we love so much and He will eat with us again in resurrection glory! Until that day, let our faith present to our senses the touch of the unseen, the foretaste of heaven's feast with the Lord.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처럼, 성찬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계속되는 교제를 이루게 합니다. 성찬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요 6:54-56).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주어진 진정한 하늘의 만찬을 먹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유일한 삶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깝고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로 인도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잡수시며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장 동정하며 아끼는 자들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동정하시며 가장 아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품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서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7).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하여 접촉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현교회는 말씀 위에 서고 십자가 밑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참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진짜이신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복,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나누는 축복의 잔과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째 날을 가장 훌륭하게 맞이하는 방법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복음의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나라가 복음의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향하여 되돌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다 진실한 회개를 합시다. 주님의 성찬을 함당치 않은 태도로 나누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고전 11:27-30). 따라서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의 떡과 잔을 함당히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29-30절). 우리에게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에는 태양보다 더 높은 곳으로부터 비취지는 빛이 필요한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복이 되는 떡과 잔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며,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확증합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들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잡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도록 하십시오. 아멘.

※ 진학을 앞둔 친구들에게 ※

‘나’를 ‘나’ 되게 한 것 그리고 나의 소망

김 에스더

김성관 목사 딸,

미국 디어필드 제일장로교회 고등부 3학년

우리는 배움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들을 통한 배움으로 우리는 ‘나’가 되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의 가장 큰 영향은 나의 가족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빠는 내가 아주 어릴 아이였을 때부터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분은 나의 놀이친구였고, 또 상담자이자 보호자였습니다. 나는 아빠로부터 스포츠볼을 던지고 잡고 치는 기술, 웃음과 음식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빠는 성실성과 결단하는 힘, 일에 매달리는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가치를 나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하나로 엮어주는 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아빠는 ‘외강내유(quiet inner strength and a rather tough exterior)’의 성품을 가진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이 아빠의 가르침을 실천에 사용해 보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LA 근교에서 일년 이상 공부하시는 동안 나는 엄마와 단들이 시카고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때 나는 엄마의 집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집안살림을 관리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자동차에 기름 넣는 일 등을 위해 일주일치씩 예산을 짜야 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물론 실제로는 엄마가 다하셨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집안살림을 맡겨주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믿음은 나를 진심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는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느꼈고,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중3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디어필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유년시절 전부를 함께 보내던 친구들을 뒤로 하고 낯선 집과 학교,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했던 그 시절이 나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늘 내 곁에서 나의 큰 도움과 위로가 되어주셨던 아빠가 신학공부를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시게 되자, 나는 더욱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힘겨운 환경이 나에게 중요한 몇 가지의 배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시기 동안, 쌓아놓은 평판이나 인맥이 없이는 사회라는 곳이 우리에게 얼마나 냉혹한 곳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학교수업에 더욱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나의 노력과 그에 따라 발휘된 능력으로 인해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쾌한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경쟁하는 것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밝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치열한 경쟁 뒤에는 많은 어두운 상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공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평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자극제가 될지는 몰라도 냉담하고, 황량한 고립과 불화를 일으키는 경쟁은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진실로 가치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여전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다른 모든 생명체와 구분해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가 경쟁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현실을 소유하기 위해 미래로 달려가는 거친 길에서나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지켜줍니다.

나는 이를 위해, 의술을 통한 예수님 사랑의 실천으로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뜻을 나의 소망과 의무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술은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어 인류를 하나로 모으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나는 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에 꼭 빠졌습니다. 의술은 특정부류가 아니라 지위와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줍니다. 육체적 질병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몇 년 전, 아빠가 편찮으셨을 때, 나는 내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될 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인간관계까지도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에 따라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의 건강까지도 약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성공을 위한 경쟁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여부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보살핌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의학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가장 뚜렷한 힘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생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앞으로 긴 여정을 통해서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서탐방 / 청년2부

새로운 변화로 활기를 띠는 30대 신앙 공동체 청년2부

강력한 지도자 훈련과 30대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준비

오르게 하고도 남을 것 같은 확신을 준다.

집회의 내용은 찬양과 말씀 선포, 기도, 새교우 환영, 그룹성경공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청년2부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나은 내용으로 개편해 가고 있는 중이라 한다. 목사님의 야심찬 계획을 들어 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잠재력을 가진 모임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모든 교사와 조장들은 그룹성경공부에 앞서 지도자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이 지도자 교육

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모든 일은 회원 중심인 면려회에서 이끌어간다. 또 청년 지도자 성경공부를 주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초부터는 영적 부흥을 위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에 면려회 임원, 교사, 회원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 수요일 2부에 매 후에는 면려회 자체 기도회를 하고 있다. 청년2부는 인원 확보에도 애를 쓰고 있다. 대학부에서 청년1부로, 다시 청년2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1부와 새가정부에서 30명 정도를 유입하였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청년들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청년2부는 자랑거리가 많다. 우선은 가족이 출석하기 때문에 전 가정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또 소그룹 구성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미혼의

독신들로 구성된 살롱반, 부부로 이뤄진 사랑반, 기혼이지만 여러 이유로 혼자 출석하는 믿음반, 신입반인 소망반이 있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 복음으로 일체감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공동체에도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 청년2부의 가족들은 대개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대에배만 드리고 청년2부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2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출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회 차원에서 이 부서를 활기찬 청년2부로 만들기 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인생의 흐름 중에 삼십대는 여러 모로 과도기적인 때이다. 개인적으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야 하고 가정도 가꾸어 나가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기반을 다져야 한다. 따라서 부부 행복 만들기, 자녀 키우기, 경제적 기반 잡기 등이 모두 그들 앞의 과제이다.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바쁘게 살다 보니 교회 내에서 교우들과 친밀하게 지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되어 외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 수가 있다. 청년2부는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공동체이다.

충현의 삼십대 젊은이들이여, 이곳으로 오라. 청년2부는 당신들을 맞이하게 위해 언제나 문을 열어 두고 있다.

(글/정연희 기자, 사진/이문구 기자)

삼십대 청년과 장년을 이어 주는 징검다리가 있다. 싱싱한 이십대와 인생의 깊이를 더해 주는 삼십대 사이에 아직도 신선함을 잃지 않은 풋풋한 삼십대의 모임이 있다. 그 공동체는 청년2부(부장 송환창 장로, 지도 전형준 목사)이다.

청년2부는 장년1부로 출발하였다. 총신대 교수님들로 구성된 협동목사님들이 강해 중심으로 이 부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장년 중심이어서 청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교수 체제에서 담당목사 체제로 변신하게 된 것이 청년2부이다.

청년2부의 대상 연령은 만 30세에서 39세까지이고, 현재 제적은 142명이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12명의 조장과 18명의 선생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

특히 98년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일고 있다. 앞장 선 전형준 목사님의 열의는 너무나 뜨거워서 청년2부를 활활 타



< 연말 연시 행사 계획 >

97년	12월 25일	13:00	성탄절 특별 기도회	교육관 514호
		16:00	서울역 전도대회	서울역
	12월 28일	18:00	연말 결산 기도회 및 대화의 광장	칼빈홀
98년	1월 6일	19:00	교사, 임조장 특별회의	칼빈홀
	1월 8일	19:00	진입생을 위한 일일 수련회	교육관 212호
	1월 19, 20일	19:00	겨울수련회	교육관 212호

취재수첩

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선물 전달 자녀들 주소 속히 알려 주시기를

군전도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 군에 입대한 150여명의 젊은이들에게 담임목사의 격려편지를 담은 성탄절 선물(전도와 기도 관련 책 두 권)을 보냈다. 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 아름다운 영혼을 가꾸면서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한 제대 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부르짖는 가족과 성도들의 기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래 군전도회에서는 약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소가 미비한 관계로 100여명에게는 발송하지 못한 상태이다. 군전도회에서는 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들의 주소를 속히 알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 본받아 내 이웃에게 사랑 베풀자 영어예배·교육부, 시온찬양대 성탄절 기념 행사 가저

지난 12월 20일 영어예배·교육부, 시온찬양대에서는 복지관 가나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성탄 축하 헌신 발표회가 있었다. 운영탁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찬양, 악기 연주, 성경 암송과 성극 공연, 성경 이야기 발표 등의 다양한 순서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아 어려운 시대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결심하게 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경찰전도회 경찰특공대에서 전도집회

경찰전도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 사당동 소재 경찰특공대(테러 진압 작전 임무 수행)에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회장 이갑재 장로의 기도와 안동현 집사의 성경 봉독(마 1:21), 경찰전도회 여성중창단의 특송, 지도 이승수 목사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믿지 않는 경찰특공대원 128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다. 예배 후에는 훈련으로 수고하는 경찰관들에게 떡, 과일, 음료수를 대접하며 위로의 시간도 가졌다.

경찰전도회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전·의경, 경찰관인 성도들이 경찰 복

고 유동수 형제 장학현금 2천만원 헌금

지난 10월 4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의 죽음을 몰랐다. 고 유동수 형제, 그는 38세의 총각이었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오던 중, 고층아파트에서 추락사 하였다.

4교구 소속이었던 형제의 죽음을 맞아 교구장(황영일 장로)과 교역자들은 불철주야 애쓰면서 그의 가족들을 돌보고 섬겼다. 그리고 나서 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은 고 유동수 형제 이름으로 받은 보험금 2천만원을 선뜻 장학현금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하게 되었다.

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전도 활동을 떠나갈 것을 기대하며 경찰전도회 사무실(본당 지하 아멘홀, 교한 235번)로 연락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에바다부 수화교실 수료식 가저

지난 12월 21일 에바다부에서는 수화교실 수료식이 있었다. 진홍용 장로의 사회와 박인기 전도사의 설교로 수료예배를 드린 후 수료증을 수여했다.

3개월 동안 교육을 모두 받아 수료한 성도들은 초급반 23명, 중급반 4명, 고급반 4명 모두 31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에바다부 교사로 봉사하게 된다.



고등부, 오늘 성극 공연

고등부에서는 성극부 마라나타 주관으로 오늘(12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갈릴라홀에서 '슬픈 로라'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한다. 주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이 공연에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을 바라고 있다.



▲ 지난 주일 찬양예배는 할렐루야찬양대(지휘 김철문, 반주 조희영)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음 악예배로 드렸다. '오 거룩한 밤'을 포함하여 총 일곱 곡이 약 30분 간에 걸쳐서 연주되었고, 특별히 여섯번째로 연주된 '성탄송가' 중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을 끈 채로 온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진/이윤구 기자, 글/박주영 기자)

찬양위원회 간사 모집

1. 자격
세례를 받은 자로 PC 사용이 가능한 자
2. 직종
찬양위원회 간사
3. 근무시간
① 수요일과 토요일 : 종일 근무
② 목요일 : 저녁 근무
4. 문의
찬양위원회 현상민 목사

은퇴식 및 근속자 포상식

오늘(12월 28일), 저녁찬양예배 시간에

교회는 한 직임을 맡아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을 매년 포상하여 오고 있는데 올해도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오늘(12월 28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행하기로 했다.

장기 근속자 선정은 직분을 받고 동일 직분에서 근속한 사람으로 직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직분에서 장기 근속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가 9년 근속한 후 서리집사 임명을 받는 경우 교회학교 근속연수는 해당이 안되고 서리집사 근속연수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근속일수는 취임 및 임명일로부터 포상 시행일까지로 하며 군복무 경우 제대와 동시 봉사직에 복귀하였을 때는 근속으로 하되 군복무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와 아울러 금년말로 70세가 되는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들의 은퇴식도 실시하게 된다.

은퇴자명단

장로
김영삼 서일영

안수집사
주원홍

권사

강봉옥	교회주	김순복	김정덕	김현숙
노 반	라봉도	박복실	박옥식	백종숙
성학기	송순자	신명희	신영순	이귀래
이상권	이영순	임신실	장요성	전순자
전일향	정송화	정채금	조정원	최혜영
필영숙	홍수임	황숙영		

장기근속자명단

25년/서리집사
김준호

20년/장로

김영삼 윤명식 조순근 김은호

20년/권사

교회주 김상순 박옥식 이문자 이봉재
이희복 이희수

20년/서리집사

이춘만 정도원 강인애 소재숙 윤익열

15년/장로

서일영 하대선 윤인현 최대원 박승준
엄필성 송기홍 강은원 강모용 오정현
최성현 이 훈 남선우 서동석

15년/권사

정홍옥 고남균 김남진 김태숙 박영숙
박인옥 신수옥 안소현 윤여전 이귀분
이인경 전일향 조종원 한영숙 황규선

15년/서리집사

권석태	권영주	김병권	김세홍	김영춘
김인혁	박남수	박종태	양병진	윤선기
이동식	이배근	이예경	장영환	전병남
정영래	정정일	조금복	최성국	하재명
홍성옥	권명숙	권필순	김봉애	김성녀
김영주	김옥남	김용숙	김종희	남숙자
박복순	박영숙	배옥순	백덕임	백영기
서계실	심복수	이강분	이정여	이명숙
이복희	이영숙	이인숙	이형숙	전경자
정경희	정금자	정명실	정혜원	조유자
주영자	차명신	한숙영		

김재명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손경수
이종국 윤성철

10년/안수집사

최차용 고병국 이지걸 박홍규 이동명

10년/권사

고인규	김경순	김동원	김분려	김순배
김심영	김연수	김윤희	김은순	김은주
김종희	박영엽	박영임	반정현	백경옥
신정숙	양승희	어수덕	유효열	윤병인
이규숙	이상권	이순점	이옥기	이옥남
이인자	이청자	이혜숙	전순임	정순애
최재호	한정심			

10년/서리집사

강경의	강광옥	고건일	고광국	기중선
김관형	김상기	김성구	김성남	김신경
김신후	김영실	김영환	김영효	김장영
김종린	김종만	김형곤	남승락	박상권
박용정	박원화	박종옥	박종학	박창근
백종현	소재옥	송경수	송용옥	송계현
신광철	염광호	오동건	윤병조	이교영
이규선	이덕규	이동희	이성남	장윤관
정연봉	정영덕	정완보	정유채	정홍관
최만엽	추교천	추병창	표성배	강보현
강승연	권중희	기인양	김말순	김신자
김성자	김수영	김은숙	김재순	김정란
김영화	김월분	김태금	김현미	나승순
김지순	김진희	박남분	박명자	박미서
남은희	민영기	박애영	박옥선	박은숙
박복순	박애영	박현순	방군자	변을진
박정숙	박향래	서명숙	성길운	송동준
변정자	신재금	심영숙	심현경	안명자
신일순	양순옥	오말녀	오혜숙	우명자
안용녀	유정자	유주옥	유현정	유호근
유인숙	윤선주	이경자	이선녀	이귀남
윤경중	이남희	이명용	이선녀	이성숙
이성옥	이순자	이애나	이애영	이양호
이연실	이영숙	이영희	이영희	이현주
이형순	임문자	임애규	임정일	장수인
장순태	전봉자	전옥희	전유강	전은실
정금연	정복득	정숙자	정애화	정영숙
정영숙	정운애	정의숙	정정환	조남숙
주영숙	최귀순	최순자	최애순	최재희
탁경미	한금자	한명숙	한박선	한정숙
황광옥				

10년/찬양대원

송근영 한선형 최정현 하진희

10년/장로

목사님께

저는 대학 졸업 후 종현의 문 안에 들어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개인적인 실패도 겪고 교회적인 일련의 사태도 지켜보면서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여기며 몇 번씩 넘어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올해까지만 종현의 사람으로 있어야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엉터리에게 주님은 자신의 일을 의탁하셔서 모든 것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이 열심이 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체험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을 깊숙히 들여다 보면 아직도 제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종종 상황에 따라 마음 속에서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하여 날마다 훈련시키시며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기쁘고 셀레는 마음으로 금요기도회를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은 저에게는 조금은 크시고 먼 분이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모습에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느낍니다. 영적인 찬송으로 영혼 깊숙히 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저는 가슴이 메입니다.

마음 깊숙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실로암찬양대 임효선 드림